



해외출장 가이드

불가리아 출장자료

【 목 차 】

I. 불가리아 국가 개요	1
II. 불가리아의 최근 정치, 사회, 경제동향	4
III. 한-불가리아 간 교역 및 투자 동향	12
IV. 불가리아 시장특성 및 유의 사항	16
V.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20
VI. 현지 유관기관 안내	29
VII. 무역관 안내	30





I. 불가리아 국가 개요

1. 일반 개황

- 국 명 : 불가리아(The Republic of Bulgaria)
- 국 기 :  (흰색 : 평화 · 순수, 녹색 : 자연, 빨간색 : 용맹 · 믿음)
- 위 치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동부에 위치 (루마니아, 그리스, 흑해, 터키,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와 접경)
- 면 적 : 110,993평방km (한반도의 약 1/2, 유럽국가 중 15번째 규모)
- 수 도 : 소피아 (SOFIA), 인구 132만명
- 주요도시 : SOFIA(130만명), PLOVDIV(68만명), VARNA(48만명), BURGAS(42만명), STARA ZAGORA(33만명), Ruse(26만명)
- 인 구 : 695만명 (2015년 말 기준)
- 1인당 GDP : US\$ 6,858 (BGN 12,001) (2015년 기준)
- 언 어 : 불가리아어 (상용어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불어)
- 종 족 : 불가리아계 570만명(82%), 터키계 70만명 (10%), 집시 40만명 (6%), 기타(유대인, 루마니아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등) 15만명 (2%)
- 종 교 : 불가리아 정교 85%, 이슬람 13%, 카톨릭 1%, 기타 1%
- 기 후
 - 대륙성기후로 사계절이 있으며 연평균기온은 섭씨 10.5도
 - 지역적으로 중앙의 발칸산맥을 경계로 남부 평야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북쪽은 대륙성 기후
 - 우리나라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나 겨울에는 눈이 좀 더 많고 추우며 여름에는 습도가 낮아 무더운 날씨가 적음
- 화폐단위 : 레바(Leva, BGN으로 표기)
- 환 율 : EUR 1 = BGN 1.95583(고정환율)
- 시 차 : GMT+2 (한국보다 7시간 늦음, 10.25일부터 쉼타임 해제)
- 정부형태 : 의회 민주주의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 국가원수 : 대통령 Rosen Plevneliev(2012.01.22. 취임. 임기 5년)
총리 Boyko Borisov (실권자. 2014.11.7. 취임. 임기4년)
- 정부성향 : 중도 우익, 친 EU, 친 NATO, 친미, 친독



2.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상 GDP	BGN백만	70,511	80,100	81,544	81,971	83,612	86,373
GDP 증가율	%	0.5	1.6	0.2	1.3	1.6	3.0
1인당 GDP	BGN	9,359	10,673	10,957	11,043	11,360	12,001
환율	BGN/USD	1.47	1.51	1.48	1.42	1.61	1.79
재정 수지	BGN백만	-2,823	-1,488	-359	-1,441	-3,073	-2,473
- 세입	BGN백만	23,932	25,378	27,469	28,977	29,409	32,205
- 세출	BGN백만	26,755	26,867	27,828	30,418	32,482	34,678
무역 수지	EUR백만	-2,413	-3,142	-4,689	-3,557	-4,021	-3,157
	% GDP	-6.7	-7.7	-11.2	-8.5	-9.4	-7.1
- 수출(FOB)	EUR백만	15,558	20,264	20,770	22,271	22,105	23,259
- 수입(FOB)	EUR백만	18,001	23,406	25,459	25,828	26,126	26,416
경상수지	EUR백만	-533	375	-108	765	495	542
	% GDP	-1.5	0.9	-0.3	1.9	0.9	1.2
외환보유고	BGN백만	17,086	21,084	25,330	28,376	35,011	40,677
외채	EUR백만	37,042	36,295	37,714	36,936	39,357	34,091
	% GDP	102.8	88.6	90.5	88.1	92.1	77.2
인구(연말)	만명	750	736	730	726	720	720
소비자 물가상승률	%	2.4	4.2	3.0	0.9	-1.4	-0.1
이자율	연%	0.20	0.19	0.11	0.02	0.03	0.01
실업률(연말)	%	9.2	10.4	11.4	11.8	10.7	10.0
임금(월평균)	BGN	648	686	731	775	822	894
외국인 직접투자	EUR백만	1,151	1,476	1,321	1,384	1,339	1,593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www.nsi.bg), 불가리아 중앙은행
(BNB ; Bulgarian National Bank ; www.bnb.bg)



3. 한-불가리아 관계

체결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11. 발효) ○ 문화협정(94.4. 발효) ○ 사증면제협정(94.8. 발효) ○ 항공협정(95.2.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95.6. 발효) ○ 무역협정(96.6. 발효) ○ 해운협정(2005.11 발효) ○ 투자보장 협정(2006.11 발효) ○ 청소년 분야 협력 약정(2007.12 서명) ○ 군사기밀보호협정 (2009.10 서명)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2010. 3.)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2011.9 서명) ○ 국방협력, 과학기술협력, 교육문화 협력 MOU(2015.5 서명)
교역규모	○ 2014년 - 對불가리아 수출: US\$ 1억 1,780만 8,000 - 對불가리아 수입: US\$ 1억 9,008만 8,000 - 무역수지 적자 US\$ 7,228만 ○ 2015년 - 對불가리아 수출: US\$ 1억 768만 8,000 - 對불가리아 수입: US\$ 1억 171만 6,000 - 무역수지 흑자 US\$ 579만 2,000
주요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 합성수지(PET), 승용차, 폴리에스텔 섬유, 기타전자응용기기, 기타섬유제품, 휴대폰용 축전지, 음료, 자동차부품, 인쇄용 필름, 편직물, 석도강판 ○ 우리나라 수입 - 사료용 밀, 귀금속 잔재물, 곡물류, 직물제 의류, 냉동 소라, 연초류, 동괴 및 스크랩, 편직제 의류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직접 투자(2016년 3월 기준) - 투자신고기준 : 총 108건, 신고법인수 : 21 - 투자금액: 2억 51만 달러 ○ 불가리아의 대한 투자 : 5건, 107만 3천 달러
교민	○ 약 170명(공관원, 지상사원, 선교사, 유학생, 자영업자 등) ○ 한인회 회장 : 박성태 - 휴대폰 : +359-(0)879-991-336 - 이메일 : kobulgaria@gmail.com

자료원 : 불가리아 정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II. 불가리아의 최근 정치, 사회, 경제 동향

1. 최근 정치·사회 동향

□ 2015.10.25. 지방선거 결과

- 불가리아는 지난 10월 25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사전 여론조사 예측대로 전체 28개 지역 가운데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가운데 22개 지역을 차지하였음. 무엇보다 수도인 소피아를 비롯하여 제 2도시 플로브디브, 제 3도시 바르나, 제 4도시 부르가스를 모두 석권하여 압승하였음.
- 이로써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정부 여당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향후 보다 더 안정된 정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43기 정부

- 유럽발전시민당(GERB), 개혁 연합(Reformist Block), 애국전선(Patriotic Front), 불가리아 부흥대안(ABV)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43기 정부가 출범함.(2014년 11월 6일)
- 2016년 10월 23일(일)에는 제 8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16년 6월 기준 갤럽 여론조사 결과 현 집권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25% 득표율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현 집권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2015년 10월 25일에 실시되었던 지자체 시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하였기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경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보다 안정된 정국 운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제 43대 총선, 각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순위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1	유럽발전시민당(GERB)	32.67%	84
2	사회당(BSP)	15.40%	39
3	권리자유운동당(MRF)	14.48%	38
4	개혁연합(Reformist Block)	8.89%	23
5	애국전선(Patriotic Front)	7.28%	19
6	검열없는 불가리아당(BWC)	5.69%	15
7	아타카당	4.52%	11
8	불가리아 부흥대안(ABV)	4.15%	11

주 : 불가리아 선거법은 득표율 4% 이상 시 국회 진출이 가능

자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ntral Electoral Committee)

□ 43기 정부의 정책 기조

- 친 EU, 친 NATO 기조를 유지하면서 파트너십 강화
- 사법제도 개혁에 박차
 - 43기 신정부는 그 동안 EU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법제도 개혁에 박차
 - 법원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사장 평의회(Supreme Prosecutors Council) 위원 및 대법관 선출 직선제 도입들을 위한 법제도를 개정
 - 아울러,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 법원, 검찰, 경찰 등 주요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e-Justice도 함께 구축
- 재정 및 금융 분야
 -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 국세청과 관세청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제고
 - 현행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 유지, 유럽은행 감사(European Banking Supervision) 대상에 불가리아를 포함
- EU 기금 수혜확대를 위한 투명성 제고 노력
 -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 기간 EU 기금 수혜확대를 위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단계 2007-2013년 기간 들어난 EU 규정 위반, 지자체의 행정능력 미숙, 입찰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사례 적발, EU 기금 수혜 한시적 중지가 반복



되지 않도록 e-Procure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찰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

-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집중
 - “불가리아 국가발전전략 2020 “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43기 정부에서도 이를 주요 정부정책으로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
 - 43기 정부는 강력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지방별 및 기관별로 난립해 있는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구(Information technology and e-Government)를 교통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
 - 또한,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공공정보 공개 지침(Directive 2013/37/EU)을 준수하기 위해 2015년 중에 관련 법제도 수립을 비롯하여, 공공 정보 구축을 위한 정책과 로드맵 수립, 정부 및 비즈니스 수준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
-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부 신설
 - 국가전력수도규제위원회와 전력청의 만성적인 적자 및 에너지정책 추진의 일관성결여로 야기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를 신설
 -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수명을 연장하여 지속 사용한다는 방침
 -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2년 내에 50%로 확대하기 위한 건물 개보수 추진
 - 실제로 정부는 2015년부터 열손실로 인한 에너지낭비 문제 개선 프로그램 시작하였으며 총 지원 예산은 6억 달러 규모
-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대
 - 불가리아 정부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대에 2014-2020년 EU 기금 가운데, 총 16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
 - 특히, 철도 인프라 확충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계획



□ 국가신용도

- 2015년 말 기준 S&P 신용평가사는 불가리아 신용등급을 BB+, Fitch 신용평가사 또한 불가리아 신용등급을 BBB-로 2014년 말과 동일하게 유지

[불가리아 신용등급]

Agency	Date	Foreign currency			Local currency		
		Long term	Short term	Outlook	Long term	Short term	Outlook
Standard&Poor's	12 Dec 2015	BBB-	A-3	Stable	BB+	B	Stable

자료원 : 불가리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EU, 불가리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2014년 12월 4일, EU 집행위원장 클로드 용커는 불가리아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협력 검증 메커니즘(CVM)을 통해 불가리아의 사법제도 개혁과 부패 및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고 밝히면서 2019년 안에 불가리아를 CVM 관찰 대상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언급함. 불가리아는 2007년 EU가입 이후부터 사법제도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이행 노력이 미비한 수준임.
- 또한,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부문 사업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EU의 감시와 조정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실례로 수처리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EU 규정위반, 불공정사례 적발 등으로 2014년 한해동안 모든 수처리 분야의 프로젝트가 한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음. 이후 불가리아 환경부는 EU의 조정 요구에 따라 수처리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EU는 불가리아의 잠정 중단되었던 수처리 프로젝트를 재개하도록 승인하였음.
- 이처럼 EU는 불가리아 정부를 향하여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 부정부패 척결, EU 규정 이행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EU 기금 한시적 중단 등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률

- 2015년 GDP 성장률은 3%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4년 1.6% 보다 크게 성장한 것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기대되었음.
- 2015년 경제성장률 3% 달성한데 이어, 2016년에도 3% 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GDP 성장률 추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0.7	2.0	0.5	1.1	1.7	3.0	3.1*

자료원 :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물가상승률

- 2015년에는 유럽경기가 저성장·저물가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였고, 불가리아도 내수 침체로 인한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0.1%를 기록함.
- 2016년에는 공공요금, 식료품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EU 기금 유입에 따른 내수 진작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1.2%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물가상승률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물가상승률(%)	4.2	3.0	0.9	-1.4	-0.1	1.2

자료원: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실업률 및 임금상승률

- 불가리아의 2015년 실업률은 여러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딘 경기회복세 및 내수침체로 2014년 수준인 10%대를 기록함.



- 2016년에도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EU 기금유입에 따른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 확충 등 경기회복의 전망에 힘입어 실업률은 9.5%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법정 최저임금액은 420레바로 전년대비(380레바) 10.5% 증가함.

실업률 및 최저임금액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업률(%)	10.4	11.4	11.8	10.7	10.0	9.5
최저임금액(BGN)	270	290	310	340	380	420

자료원: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환 율

- 불가리아의 통화인 레바는 1999년 6월부터 EU 통화개혁에 따라 1유로 = 1.95583 레바로 고정되었으며 이 고정 환율은 2015년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불가리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고정환율제를 지속 유지
- 불가리아는 1997년 6월 IMF에 의해 재정금융정책이 통제를 받아왔으며 당시에는 독일의 마르크화와 불가리아의 레바화(BGN으로 표기)를 일정비율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Currency Board)를 채택함. 이후 1999년 6월 EU 통화개혁에 따라 마르크화 대신 유로화를 기준통화로 사용하게 됨.
- 유럽경기침체의 영향과 유로화 약세로 달러의 레바화 명목유효 환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환율은 1달러 = 1.74레바 수준을 보이고 있음.

환율 추이 (달러대비 레바화 환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환율(연말기준)	1.47	1.51	1.48	1.42	1.61	1.79

자료원 :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재정수지

- 불가리아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 왔으나 2014년 3.7%를 기록하여 전년대비(1.8%) 재정수지 적자폭이 증가하였음.
- 이는 CCB(Corporate Commercial Bank) 은행 파산 사태와 CCB 파산 사태로 불거진 FIB(First Investment Bank) 유동성 확보 문제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4년 10월 실시된 총선으로 인해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였음.

불가리아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BGN백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Q3
재정수지	-2,823	-1,488	-359	-1,441	-3,073	622
(세입)	23,932	25,378	27,469	28,977	29,409	24,149
(세출)	26,755	26,867	27,828	30,418	32,482	23,528
% GDP	-3.9	-1.9	-0.4	-1.8	-3.7	0.7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무역 및 경상 수지

- 2011년 이후 불가리아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2015년 대외 수출은 232억 5900만 유로, 수입은 264억 1600만 유로를 기록.
- 무역수지 적자폭은 31억 유로로 전년대비(40억 유로) 21% 감소함.

무역 및 경상수지 추이

주요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무역 수지	EUR 백만	-3,533	-3,142	-4,689	-3,557	-4,021	-3,157
- 수출(FOB)	EUR 백만	14,181	20,264	20,770	22,271	22,105	23,259
- 수입(FOB)	EUR 백만	17,713	23,406	25,459	25,828	26,126	26,416
경상수지	EUR 백만	-330	375	-108	765	495	542
무역수지/GDP	%	-9.4	-7.7	-11.2	-8.5	-9.4	-7.1
경상수지/GDP	%	-0.9	0.9	-0.3	1.9	0.9	1.2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III. 한-불가리아 간 교역 및 투자 동향

1. 한-불간 교역 동향

- 2015년 기준, 한-불가리아 교역규모는 2억 94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597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이는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폭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발생한 흑자임. 2015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3억 790만 달러) 32% 감소함.
- 2015년 對 불가리아 수출은 전년대비 8.6% 감소하였고, 수입은 46.5% 감소함. 이는 유로화 약세 기조에 따른 對 유럽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불가리아 내수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도 함께 작용함.

연도별 우리나라 對 불가리아 무역 추이

(단위: 미\$천)

연도	對 불가리아 수출입		
	수출(FOB)	수입(CIF)	무역수지
2015	107,688	101,716	5,972
2014	117,808	190,088	-72,280
2013	120,375	171,889	-51,513
2012	104,786	184,457	-79,671
2011	176,821	140,398	36,423
2010	131,361	117,024	14,337
2009	71,601	40,436	31,165
2008	152,307	63,897	88,410
2007	191,236	36,859	154,377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실적

- 한국의 對불가리아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PET), 승용차, 폴리에스테르 섬유, 연괴 및 스크랩, 기타전자응용기기, 평판디스플레이, 타이어, 축전지, 인쇄용지, 편직물 등임. 특히, 수출품목 상위 15개 품목가운데 연괴 및 스크랩, 타이어, 무선통신기기부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실적

(단위: 미\$ 천,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17,808	-2.1	107,688	-8.6
1	합성수지(PET)	31,310	-28.0	27,782	-11.3
2	승용차	18,791	88.6	11,147	-40.7
3	폴리에스테르 섬유	7,109	19.5	5,402	-24.0
4	기타전자응용기기	4,407	18.5	4,956	430.8
5	기타섬유제품	3,572	7,113.9	4,595	4.3
6	휴대폰용 축전지	2,998	101.8	3,788	42.2
7	음료	2,503	113.9	3,615	92.8
8	자동차부품	2,445	-5.6	3,350	11.7
9	인쇄용 필름	2,437	23.1	2,544	4.4
10	편직물	2,356	17.4	2,422	2.8
11	석도강판	2,326	-31.4	2,171	159.8
12	휴대용컴퓨터	1,895	701.4	1,899	24.6
13	타이어	1,875	4.3	1,812	11.3
14	기타플라스틱제품	1,627	-1.0	1,735	12.0
15	연결부품	1,549	18.1	1,621	8.3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실적

- 한국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은 사료용 밀, 직물제의류, 판유리, 곡류, 계측기, 연초류, 기타수산물가공품, 의약품, 운반하역기계부품 등임. 특히, 수입품목 상위 15개 품목 가운데 판유리, 의약품, 기타가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실적

(단위 : 미\$ 천,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90,088	10.6	101,716	-46.5
1	사료용 밀	56,693	25.0	21,501	-62.1
2	귀금속 잔재물	52,829	-27.7	12,031	5.1
3	곡물류	11,582	45,290.3	7,858	647.6
4	직물제 의류	11,449	29.3	4,956	-57.2
5	기타수산물가공품	4,988	87.0	4,262	141.9
6	연초류	4,233	-16.9	4,050	-4.3
7	동괴 및 스크랩	3,648	2,034.6	3,884	-22.1
8	편직제 의류	3,228	12.8	3,715	134.3
9	기타 정밀화학원료	2,451	91.4	3,520	9.0
10	기타가구	2,327	3,093.5	2,259	10.0
11	원동기	2,304	12.9	2,258	-2.9
12	운반하역기계부품	2,054	-38.5	1,848	-19.8
13	기타섬유제품	2,042	-16.8	1,718	119.7
14	센서	2,037	-51.2	1,547	-4.2
15	계측기	1,761	241.8	1,450	-8.7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2. 한국의 對 불가리아 투자 동향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한국의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는 신고건수 108건, 투자금액 2억 51만 달러를 기록함.
- 2013년 이후 불가리아에 한국기업의 불가리아 현지 직접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5년에는 지점형태로 불가리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남동발전은 불가리아의 벨리코 트르노브 지역(Samovodone 21MW, Zlataritsa 21MW)에 총42MW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음. 이와는 별도로 현지법인인 EU Sunday사가 하스코보, 슬리벤, 플로브디브 등 지방 여러 도시에 총 18MW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Aisa Investment 사는 버섯 재배를 위한 농업투자를 시작함.

한국의 對 불가리아 투자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신고건수(건)	40	28	17	4	-	1	108
신규법인(건)	3	8	-	-	-	-	21
신고금액 (US\$천)	36,132	83,668	25,949	4,087	-	-	263,326
투자금액 (US\$천)	36,121	56,021	44,180	4,110	-	-	200,51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IV. 불가리아 시장특성 및 유의 사항

1. 시장 규모 및 특성

- 불가리아의 인구는 2015년 말 기준 720만 명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미화 7,000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며 따라서 구매력이 취약하며 대다수가 빈곤함.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미화500 달러 수준임.
- 지하경제규모가 공식 경제규모의 34%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거래, 소량 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업체와의 교신

- 인터넷, Wi-fi 등 통신 인프라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잘 갖추어져 있어 업체와의 유선 통신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이메일의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용량의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3. 휴가 시즌

- 7-8월은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가 1개월 정도 휴무하며 대체로 7월 중순이후 8월말까지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및 연락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성탄절 이후 1월 6일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휴무함.
- 부활절 연휴(4월 말~5월 초), 5월 초(5.1 노동절, 5.6 성 게오르기의 날) 연휴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휴무함.



4. 가격조건 제시

- 불가리아의 주요 항구는 바르나(Varna)이며 통상적으로 Varna 항구까지의 운송 조건에 의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즉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CFR Varna 또는 CIF Varna 조건으로 제공 요망.
- 가격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산정 요망. 불가리아의 화폐인 레바(Leva;BGN)는 유로화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1유로 = BGN1.95583) 현지인들은 대미 달러화 결제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5. 최소 주문량 제시

- 불가리아의 주요 수입상들은 필요시 서유럽으로부터 소량 수입 공급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시장규모(인구) 및 구매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주문량을 신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결제조건 제시

- 불가리아의 경우 대부분의 바이어는 T/T 결제를 선호하며, 보통 선금 30%, 선적 후(선적서류 사본 송부 후) 70% 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결제금액이 크거나 대량 원자재 수입의 경우, L/C(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의 현지 수입업체들은 L/C 개설에 따른 은행 수수료 지불 및 절차상 불편을 이유로 T/T 결제를 선호함.
- 일부 사전 송금 후 잔금 결제 시, 결제조건에 대해 보다 신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임.

7. 상담 시 주의 사항

1) 동등한 입장에서 상담

- 국민소득수준이 낮다고 경시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릴 것



- 사업 파트너로서 구매력에 관계없이 진실하게 상담
- 2) 수출가능성과 함께 시장동향 파악도 중시
- 시장규모, 경쟁관계 등에 대한 파악을 사전에 할 것
 - 시장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것
 - 단기적인 측면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 3) 대기업의 경우 직원은 다분히 피동적인 태도
- 동기부여 등이 낮은 수준임
 - 가능한 한 민간 중소기업체를 사업 파트너로서 적극 모색
- 4)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 금융부문의 취약성 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파악 필요
 - ※ Unicredit Bulbank, UBB 등 비교적 건실한 은행과의 거래 유도
 -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는 반드시 확인 필요
 - 대형설비의 경우 공급자 신용 제공이 필요
 - ※ 수출입은행 : UBB 등과 전대자금계약체결 추진 중
 - 거래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분쟁 발생 시 재판 등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 장기간 소요
- 5)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사후 관리 철저
- 상담 중 너무 쉽게 약속을 하지 말 것
 - ※ 샘플 무료 제공, 즉시 추가자료 제공 등
 - 상담 중 약속 내용에 대한 기록 철저 및 사후 관리 필요
 - 상담 후속 조치 내용은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해당 업체에 사유를 통보
- 6) 현지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노력 필요
- 키릴문자를 발명한데 대한 자부심이 강함.
 - 선사시대 유적 등 다수 존재
 - 유네스코지정 문화유산(9개) 및 자연경관 우수(12 국립공원)
 - 비잔틴, 터키 등 장기간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강



자에 굴복, 명분보다 실리에 기민

- 서양 식사 예절 등에 대한 관심 필요
 - 불가리아는 독한 술(라키아)로 시작
 - 입안에 음식을 넣은 상태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 스프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아야
 - 불가리아의 독특한 제스처
 - 긍정(예;DA)시 고개를 좌우로
 - 부정(아니요;NE)의 경우 고개를 아래위로
- ※ 제스처보다는 음성(예, 아니요)을 잘 들어야 함



V. 현지 체류시 참고 사항

1. 비자

-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단기사증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이 94. 8월 체결되어 관광객은(90일 이내 체류) 비자가 면제됨.
- 따라서 무역사절단의 경우 비자가 불요

2. 면세 반입 가능 물품

- 주류 : 위스키 류 1리터, 포도주류 1리터
- 담배 : 200 개피
- 향수 : 50ml
- 커피 : 200g
- 기타 물품 가격 : 날 개당 50유로 이하 1인당 100유로 이하
- 현금 : 20,000레바(약 10,000유로 상당) 이내
 - ※ 1인당 현금 소지액이 20,000레바(약 1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 세관에 미신고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 현금 압류 조치 및 구금 될 가능성이 있음.

3. 통관 시 주의점

- 견본을 지참하는 경우 ATA Carnet 증명서 소지.
 - 일전에 무역사절단 일원으로 당지를 방문한 업체가 견본으로 안경테를 다량 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ATA Carnet을 지참하지 않아 공항 출입 시에 상당한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음.
- ATA Carnet 지참이 어려울 경우 인보이스라도 작성해서 지참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보다는 나으나 이 경우 입국 시 적발되면 관세와 부가세(20%)를 물어야 함.
- 세관검사에서 미신고사항 적발 시에는 벌과금 등이 매우 높으므로 세관원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음.



4. 택시 이용 시 유의 사항

- 소피아 공항 도착후, OK 택시 정류장으로 반드시 이동할 것. 공항에 별도의 OK 택시 정류장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FAKE 택시에 걸려 많은 바가지요금을 지불할 수 있음.
- OK 택시에는 OK 택시 마크와 전화번호 9732121 번호가 전면에 부착되어 있음. FAKE 택시의 경우, OK 로고를 도용하고 있어, 택시번호가 9732121 이 아닌 택시는 각별히 주의를 바람.(아래 택시 사진 참고)



-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 보통 10유로 정도 선이며, 특히 야간에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시에는 운전수들이 별도의 팁을 요구할 수 있어 넉넉하게 15 유로 정도를 주면 호텔까지 잡음 없이 도착 가능함.

5. 환전 시 유의 사항

☐ 화폐 단위

- 불가리아 화폐단위는 레바(Leva)이며 지폐는 100, 50, 20, 10, 5, 2, 1 레바가 있고 동전은 1레바, 50, 20, 10, 5, 2, 1 스토틴키(Stotinki)가 있음.
- 불가리아의 화폐는 BGN으로 표기하며 읽을 때는 ‘레바’라고 함.



□ 환율

- 불가리아 화폐(BGN)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으며 1유로는 2레바정도로 생각하면 됨.
 - 고정 환율 : EUR 1 = BGN 1.9558
 - 레바의 달러화 환율은 해당 사이트(www.unicreditbulbank.bg)에서 확인
- 불가리아 중앙은행에서 매일 당일 중앙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나 민간은행의 경우 시세에 따라 하루 중에도 환율이 변동됨.

□ 환전

- 환전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내 일반 환전소에서 가능하며, 은행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을 요구함. 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로부터 환전하지 말아야 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의 경우 위폐나 신문조각 등을 이용하여 속이는 경우가 많음.
- 민간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에 환전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환전증명서상의 적용 환율 및 수수료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서명하여야 함. 환전 증명서상 환율 및 수수료 등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실제 환율 적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소액 환전 시에는 투숙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6. 대중교통

- 메트로 (지하철)



불가리아에는 수도인 소피아에만 2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으며, 그 중 2호선은 2012년 8월에 새로 개통됨.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은 소피아 센터에 위치한 '세르디카'역임.

요금: 1.60레바(약 1,100원)

운행시간: 05:30AM~11:30PM



○ 버스



전동버스와 일반버스 2종류이며, 버스표는 거리의 신문·잡지 가판대에서 구입한 후 승차하여 차 안에 설치된 개찰기에서 개찰하면 됨.

요금: 1.60레바(약 1,100원)

운행시간: 05:00AM~11:00PM

○ 전차(트램)



시내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며, 승차 전 정류장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운전석에서 구입 후 전차 안에 설치된 개찰기에 개찰하여야 한다.

요금: 1.60레바(약 1,100원)

운행시간: 05:30AM~11:00PM

○ 택시



택시 요금은 자유화되어 있어 택시 회사마다 다르므로 승차 시에는 유리창 앞에 적혀있는 요금 체계를 확인 필요

기본요금은 택시 유리창에 부착되어있는 요금표의 가장 윗줄에 표시된 금액이 km당 요금으로 0.79레바(평상시 요금)나 0.90레바(야간 할증 요금)로 되어 있는 택시를 탑승



OK 택시 또는 옐로우 택시 사용 권장.

OK, YELLOW 택시 마크와 전화번호 9732121, 91119 번호 부착 확인 요망



7. 현지 기후 및 용이한 복장

☐ 기후

- 불가리아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이며 계절별 기온도 유사함.
- 11월 평균 최고 및 최저 기온은 12℃~1℃ 임. 아침과 저녁으로는 추워 긴 소매 옷과 두터운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

8. 현지 물가 및 치안 상황

☐ 물가수준

- 일반적인 음식은 15유로 이내에서 먹을 수 있음. 이 경우 스프나 샐러드, 주 음식, 디저트 등 코스 요리를 드실 수 있음.
- 인건비도 비교적 낮아, 택시비 등이 저렴한 편임.
- 한국식당 음식의 경우 찌개종류가 13유로 내외이며, 술 등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높음.

☐ 치안 상황

- 불법, 탈법 행위가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신체적인 위해 사건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복잡한 시내, 대중교통, 공항 등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소지품에 신경을 써야 함. 가능하면 귀중품이나 여권 등 중요 서류는 호텔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내를 걸어 다니는 경우 혼자 행동하지 말고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가리아에는 집시가 비교적 많으며 이들이 시내에서 지나가는 행인 으로부터 지갑을 뺏는다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금 및 귀중품 등은 호텔의 сейфе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갑 등을 휴대할 경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함.



9. 전기 규격

- 220V, 50Hz의 전기가 공급됨.
- 콘센트는 원형 2핀이므로 우리나라 사용하는 기기를 휴대하는 경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음.

10. 관습상 유의 사항

☐ 봉사료

- 서유럽과 같이 봉사료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호텔 포터, 청소부 등에게 2레바(1유로 정도)의 봉사료를 주는 것이 좋음.
- 식당의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고급 식당의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 불필요함.
- 식당이나 택시 등의 경우 동전은 거슬러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식당, 택시 이용 시 레바 이하의 잔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차하시기 바람.

☐ 기타 문화관습

- 식사 시에는 먼저 독주(라키아라고 부르는 40도짜리 과일주)와 샐러드를 먹으며 주 음식을 먹게 됨. 샐러드와 주 음식 사이에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먹기도 함. 주 음식 후에는 후식을 먹거나 후식과 함께 커피나 차를 마심.
- 건배를 할 때는 잔을 보지 않고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잔을 부딪치게 함.
-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긍정(예)이며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는 경우 부정(아니요)이므로 혼동 하지 말아야 함.



□ 집시

- 불가리아 정부는 집시 인구가 전체의 4% 정도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 8%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들은 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폐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수집해 가는 등 생활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는 집시들이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음. 이들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함.

□ 주요 관광지

○ 릴라 수도원(Rila Monastery)



발칸 반도에 있어서 정교 수도원의 총 본산으로 10세기에 최초 건축되었으나 현재 모습은 19세기 중반 보수 및 개축된 모습이다. 정교한 건축술, 벽화, 성화, 고문서, 나무 십자가로 유명하다. 불가리아 내 9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 벨리코 투르노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양트라 강과 접해 있는 도시, 벨리코 투르노보는 과거 제 2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로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다. 과거에는 ‘투르노보’ 라고 불렸으나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 1965년 도시 이름 앞에 ‘벨리코(큰, great)’라는 형용사를 붙여 오늘날 ‘벨리코 투르노보’라고 불리게 되었다. 도시 안에는 제 2차 불가리아 제국 시기에 설립된 요새가 돋보인다.

※ 소요시간 : 소피아에서 약 2시간 거리



○ 차레베츠 성

벨리코 떠르노보(11~14세기 불가리아의 수도)의 5000년 역사의 일부분이다. 4200BC, 청동기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1985년, ‘Sound and Light’ 이라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성곽에 빛과 사운드 효과가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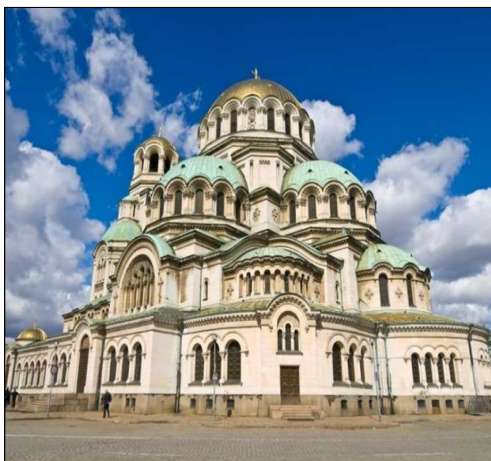
○ 플로브디프



○ 고대 원형극장

불가리아 제2의 도시로서 로마시대의 원형극장과 구도시(Old Town)가 보존되어 있다. 원형극장은 현재까지도 콘서트나 다른 행사시에 쓰이곤 하며, 5,000명~7,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 소피아 시내 관광



○ 알렉산더 넵스키 수도원

발칸반도 최대의 성당으로, 불가리아 해방에 적극 지원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와 희생된 러시아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네오비잔틴 양식으로 러시아 정교 교회풍으로,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성화들로 채워져 있다. 지하에는 고대 및 중세시대의 불가리아 유물과 성화들이 전시되고, 성당 신부들의 유골들이 안치되어 있다. 1960년 러시아에서 기증한 20kg의 금으로 돔이 도포되어 있다.



	◦ 성 게오르기 교회 쉐라톤 호텔의 정원에 있는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3~4세기경 이교도 사원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며 로마 시대에 교회로 사용되다가 터키 지배 시에는 회교사원으로 사용되었다.
	◦ 법원 건물 1940년 최고 재판소로 건축한 장엄한 건물로 입구에 사자상이 있다. 1984년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선사시대부터 1912년까지의 불가리아 중요 문화재를 전시하였으나, 2000년에 박물관이 이전하고 법원 건물로 사용 중이다.

※ 기타 시내 관광

- 성 네델라 성당(St. Nedelya Church)
- 공중목욕탕 (Mineral Baths)
- 성 페트카 지하교회(St. Petka Samardzhiiska Church)
- 소피아 여신상(St. Sofia Statue)
- 세르디카 유적(Ruins of Serdica)
- 대통령궁(President Palace)
- 국립문화궁전 (National Palace of Culture)
- 소피아 성당(St. Sofia Church)
- 성 니콜라이 러시아 교회(Russian Church)



VI. 현지 유관기관 안내

☐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

- 주소 : 7A Fl.,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전화 : +359-(0)2-971-2181
- 팩스 : +359-(0)2-971-3388

☐ 한국인 운영 현지 여행사

- Angel Tour (대표 배성환)
 - 전화/팩스 : +359-(0)2-971-5173
 - 휴대전화 : +359-(0)879-991-339
- JIKO Tour (대표 민지홍)
 - 전화 : +359-(0)2-840-1259
 - 휴대전화: +359-(0)888-692-583

☐ 한국식당 윤 (Yoon)

- 전화 : +359-(0)2-963-0365
- 휴대전화 : +359-(0)879-991-337
- 주소 :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 한인회 (회장 박성태)

- 전화 : +359-(0)2-963-0365
- 휴대전화 : +359-(0)-879-991-336



VII. 무역관 안내

☐ 무역관 직원 연락처

성명/직위	전화번호
강신학 관장	Tel: (359-2) 969-5030, (359) 889-311-578
허종원 부관장	Tel: (359-2) 969-5037, (359) 882-648-542
정순혁 차장	Tel: (359-2) 969-5035, (359) 889-216-118
Georgi Iliev (현지)	Tel: (359-2) 969-5031, (359) 888-465-666

☐ 무역관 약도



- 주소: B100,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Tel: (359-2) 969-5030/31/32
- Fax: (359-2) 969-5033
- E-mail: info@kotra-sofia.org
- Web site: www.kotra.or.kr



www.kotra.or.kr